

<2007년 7.8 서울시 기출문제복원 >

1. <보기>에서 주제 어구를 바르게 찾은 것은?

舊時代(구시대)의 遺物(유물)인 侵略主義(침략주의), 強權主義(강권주의)의 犧牲(희생)을 作(작)하여 有史以來(유사이래) 累千年(누천 년)에 처음으로 異民族(이민족) 箝制(경제)의 痛苦(통고)를 嘗(상)한 지 今(금)에 十年(십 년)을 過(과)한지라. 我(아) 生存權(생존권)의 剝喪(박상)됨이 무릇 幾何(기하)이며, 心靈上(심령상) 發展(발전)의 障礙(장애)됨이 무릇 幾何(기하)이며, 民族的(민족적) 尊榮(존영)의 毀損(훼손)됨이 무릇 幾何(기하)이며, 新銳(신예)와 獨創(독창)으로써 世界文化(세계 문화)의 大潮流(대조류)에 寄與補裨(기여보비)할 機緣(기연)을 遺失(유실)함이 무릇 幾何(기하)이뇨.

- 기미 독립 선언서 -

- ① 舊時代(구시대)의 遺物(유물)
- ② 異民族(이민족) 箝制(경제)의 痛苦(통고)
- ③ 生存權(생존권)의 剝喪(박상)됨
- ④ 民族的(민족적) 尊榮(존영)의 毀損(훼손)
- ⑤ 機緣(기연)을 遺失(유실)함

<정답> ②

<해설> 이 단락은 ‘이민족 경제의 통고’ 즉, ‘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’이 중심 어구이다.

2. “서울시 종로구 명륜동” 로마자 표기가 바른 것은?

- ① Myeongnyun-dong, Jongno-gu, Seoul, Korea
- ② Myeongnyun Dong, Jongno-gu, Seoul, Korea
- ③ Myeongryun-dong, Jongro-gu, Seoul, Korea
- ④ Myeongryun Dong, Jongro-gu, Seoul, Korea
- ⑤ Myeongryun-dong, Jongro-gu, Seoul, Korea

<정답> ①

<해설> 명륜동[명륜동], 종로구[종노구]로 발음된다.

<로마자 표기법 제5항> ‘도, 시, 군, 구, 읍, 면, 리, 동’의 행정구역 단위와 ‘가’는 각각 ‘do, si, gun, gu, eup, myeon, ri, dong, ga’로 적고, 그 앞에는 불임표(-)를 넣는다. 불임표(-)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

6. 다음 시에 대한 감상 중 틀린 것은?

겨울 나무와 / 바람
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
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
 나무도 바람도
 혼자가 아닌 게 된다.

혼자는 아니다.
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.
 나도 아니다.
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
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.

삶은 언제나
 은총(恩寵)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.
 사랑도 매양
 섭리(攝理)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.

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
 말없이 삭이고
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.
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
 한 세상을 누리자.

새해의 눈시울이
 순수의 얼음꽃
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위에 떨어지는
 백설을 담고 온다.

- 김남조 <설
 일> -

- ① 새해라는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.
- ② 새해의 눈시울과 승천한 눈물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.
- ③ 백설은 눈물의 결정체이다.
- ④ 순수의 얼음꽃은 백설과 의미가 동일하다.
- ⑤ 새해를 맞아 눈이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<정답> ②

<해설> ‘순수의 얼음꽃, 승천한 눈물’은 ‘백설’을 가리키는 것이다. 그리고 ‘눈물’은 감정의 표현이며, 눈물을 흘릴 때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순수해진다는 점을 그 앞의 ‘순수’와 연결시킴으로써 ‘승천한 눈물’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게 된다. 그러므로 ‘순수의 얼음꽃’과 ‘승천한 눈물’이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, ‘새해의 눈시울’과 ‘승천한 눈물’은 은유의 관계이다.

<정답> ④

<해설> 이 시는 봄이 와도 고향에 못 가는 안타까움 즉, 고향에 대한 그리움[鄉愁]을 노래한 작품이다.

13. 밑줄 친 단어 표기가 틀린 것은?

- ① 걸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.
- ② 녁녁치 않은 가정 형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.
- ③ 우산을 받쳐 들고 길을 갔다.
- ④ 어머니의 속을 씩이고 말았다
- ⑤ 술을 체에 받치고 있다.

<정답> ②

<해설> ‘녁녁지’가 옳은 표기이다.

‘-하다’가 붙는 말이 줄 때에 ‘-하’ 앞에서 안울림 예사소리로 끝나는 경우 ‘-하’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에 ‘녁녁하지 않다’가 ‘녁녁지 않다’로 줄고 더 줄이면 ‘녁녁잡다’로 줄게 된다.

<한글맞춤법 제40항> - 어간의 끝 음절 ‘하’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14. 다음 단어들이 한글맞춤법으로 옳게 된 것은?

내 친구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를 ㉠여우고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다. 온갖 ㉡허드레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하는가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힘들어도 ㉢오펝이처럼 일어섰다.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자 ㉣들든 대로 취직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의기소침해 있는 그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몹시 안타깝다. 그 친구가 당당히 취업통지서를 들고 내게 달려와 축하주 한 잔 사 주는 게 나의 간절한 ㉤바램이다.

- ① ㉠
- ② ㉡
- ③ ㉢
- ④ ㉣
- ⑤ ㉤

<정답> ③

<해설> ㉠ 여의고 ㉡ 허드렛일 ㉢ 들던 ㉤ 바람

15. 다음 중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고려가요가 아닌 것은?

- ① 서경별곡
- ② 이상곡
- ③ 쌍화점
- ④ 만전춘
- ⑤ 유구곡

<정답> ⑤

<해설> ‘유구곡’은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정치를 풍자한 작품이다.

16. 다음 단어의 발음이 옳게 된 것은?

- ① 소년의 미소가 밝고[발꼬] 귀여웠다.
- ② 바야흐로 봄동산에 꽃이[꼬시] 만개하였다.
- ③ 발을[바츨] 가는 황소의 몸이 무거워 보인다.
- ④ 한 시간 동안 벌을 서고 나니 무릎이[무르비] 저렸다.
- ⑤ 허수아비가 들녘에서[들려게서] 참새를 쫓고 있다.

<정답> ①

<해설> ② [꼬치] ③ [바틀] ④ [무르피] ⑤ [들려케서/들력케서]

17.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재 넘어 성권롱(成權農) 집의 술 닉뎃 말 어제 듯고
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턱고
 아히야 네 권롱(權農) 겨시냐 덩좌슈(鄭座首) 왓다 흥여라.

- ① ‘지즐턱고’는 놀러탄다는 뜻이다.
- ② ‘언치’는 안장 밑에 까는 담요를 뜻한다.
- ③ 전원의 향취가 시 전체에 무르익어 있다.
- ④ 술과 멋을 좋아하는 작가의 품성이 잘 제시되고 있다.
- ⑤ 세련되고 우아한 시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.

<정답> ⑤

<해설> 이 글은 정철의 시조로,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멋스럽게 구사하는 송강의 언어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. 비유적으로 사용된 우아한 시어는 찾을 수 없다.

술과 벗을 좋아하는 지은이의 풍류와 멋스러움이 토속적인 농촌의 정취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작품이며, 전편을 통해 생동감이 넘쳐흐른다. 재 너머 성권롱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흥겨움에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성급히 달려가는 모습에서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, 지은이의 행동에서 해학적인 면이 보이는데, 특별히 이 시조의 특징은 시상의 과감한 생략이 돋보인다는 것이다.

18. 다음 작가들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?

- ① 이효석: ‘돈’, ‘산’, ‘메밀꽃 필 무렵’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 본능의 순수성을 그려냈다.
- ② 김유정: ‘금 따는 콩밭’, ‘땡벌’, ‘봄봄’ 등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을 비판적으로 나타내었다.
- ③ 김동리: ‘무녀도’, ‘바위’, ‘황토기’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들의 세계를 주로 형상화했다.
- ④ 김정환: ‘사하촌’, ‘모래톱 이야기’, ‘수라도’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들의 세계를 주로 형상화했다.
- ⑤ 계용묵: ‘백치 아다다’, ‘병풍에 그린 닭이’, ‘마부’ 등을 통해 전통적 삶의 세계를 주로 그려냈다.

